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부안군보건소는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관내 해수의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들에게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면 16~24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 설사, 권태감,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이 시작된 후 약 36시간 이내 피부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수산물 등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하게 씻기, 수산물 등 구입시 신속하게 5℃ 이하 냉장 보관, 회감용 칼·도마 반드시 구분 사용, 85℃ 이상 충분히 가열 조리, 상처 난 피부 부위 바닷물 접촉 피하기 등 일반 군민과 고위험군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생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하반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영농을 목적으로 정읍시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이나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예비 농업인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가 읍·면 지역인 경우 해당 농업인상담소에, 동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총 10회에 걸쳐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농촌지원과 인력개발팀(☎063-539-6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작업 위험요인 없앤다

농업 현장에서 총 784건 발굴 · 59% 개선...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박차

정읍시가 농작업현장에서 위험·유해요인 784건을 찾아 이 중 467건을 개선했다.

시는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억원을 투입해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고와 질병에 취약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경영체다. 당초 11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5농가를 추가로 선정해 총 115농가로 확대됐다. 추가 선정된 농가에는 1·2차 현장 상담(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사업은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농가당 세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해 작업별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농가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6월 5일 110농가를 대상으로 1차 현장 상담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농작업장의 위험·유해요인을 진단하고, 돌출 철근·배관 안전 덮개(파이프 캡)와 안전표지 스티커 등을 보급했다.

6월 8일부터 시작한 2차 현장 상담에서는 방진마스크와 냉감 팔도시, 냉감 목밴드, 구급상자, 진드기 기피제, 소화기, 안면보호구, 안전장갑 등 공통 안전용품 8종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1·2차 현장 상담을 통해 현재까지 발굴한 위험·유해요인은 모두 784건이다. 이 가운데 467건을 개선해 59%의 개선율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파수원과 농작업장에 돌출된 철근·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다. 현장 점검에서 굽힘이나 찢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돌출 구조물을 찾아낸 뒤 규격별 안전 덮개를 보급하고 직접 설치해 사고 위험을 낮췄다.

시는 앞으로 3차 현장 상담을 통해 위험요인 개선율을 70~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사다리 벌어진 방지끈과 보안경, 방우형 콘센트 등 안전·보호용품 8종도 추가로 보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 민주평통, 지속가능한 협력 다짐

김영복 전북민주평통 부의장, 심덕섭 고창군수 면담

심덕섭 고창군수가 김영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부의장과 면담을 갖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주평통 간 협력 방안과 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영복 부의장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주평통이 지역의 통일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창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고창군도 민주평통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역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이번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각 협의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주평통 고창군협의회는 지역 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통일의견수렴, 평화문화 확산, 통일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황윤석도서관,목재공간대전서 대상 수상

홍익대 유현준 교수 설계 ·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고창 명소로 자리잡아

종묘 정전을 닮은 전북 고창의 황윤석도서관이 '2026 목재공간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목재공간대전'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주최 · 주관하고 목재 건축 ·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다.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디자인의 동시대성과 미래성을 제시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은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가 종묘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연면적 3814.69㎡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목구조 건축물로 2025년 12월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나무 기둥으로 만들어진 경사진 높은 천장 아래 도서관 공간을 배치하여



마치 큰 나무 숲의 가지 아래에서 책을 읽는 듯한 독특하고 편안한 독서환경을 구현해 내어 많은 이용객에게 사랑받는 고창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전통의 아름다움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은 고창황윤석도서관은 앞으로도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미숙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고창황윤석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며 "전통이 가진 아름다움과 의미를 미래 세대가 배우고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원광대 한의대 의료봉사, 지역 건강 돌봄 실천

심덕섭 고창군수, 경향침구학회 봉사단에 격려와 감사 전해

심덕섭 고창군수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재능나눔 의료봉사 활동에 감사를 전하고 지역의료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향침구학회가 '2026년 농촌재능나눔 개인자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1~24일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계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의료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흥덕농협이 공동 주관했다. 봉사단은 침과 뜸, 부항 등을 통한 한방 진료와 제조 한약 제공 및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

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탰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에 나서준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경향침구학회 학생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민·관 협력 재능나눔 활동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이날 성내면장은 "이번 의료봉사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